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2010년 미국 손해보험 판매채널 영업환경 전망

- 미국 보험전문지 Insurance Journal이 설계사 및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, 2010년에도 보험료 인하, 경기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손해보험의 판매채널 영업환경은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9년에 비해서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.
- 대부분의 설계사들과 중개인들은 경쟁심화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보험료 인하 추세가 2010년에는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, 많은 응답자들이 내년에도 보험료 인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함.
 -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가 계속된다면 손해보험의 판매채널은 2010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나, 약 80%의 설계사와 중개인들이 2009년에 비해서는 영업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함.
 - 설문에 참여한 한 설계사는 2009년의 침체를 겪으면서 많은 보험판매회사들이 비용을 줄이고 회사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2010년에는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를 통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.
 - 또 다른 설계사는 2010년이 판매채널의 생존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연방정부의 보험산업 개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악영향을 우려하는 설계사들이 많다고 설명함.
- 2009년에는 많은 설계사들과 중개인들이 경기악화로 인해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신계약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보험료 인하로 인한 수수료 감소로 수입이 크게 감소했음.
- 경기악화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의 사업환경 악화로 보험계약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며,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계약자도 증가함.
 - 또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료는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사 및 중개인의 수수료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, 업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(Insurance Journal, 12/29)